

새 희망, 새 노조의 길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희망 새 노조’ 언론노조 KBS 본부 위원장 후보로 나선 엄경철입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KBS에 몰아친 광풍을 몸으로, 마음으로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KBS를 향한 국민의 요구와 비판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파도로 몰아치고 있고, 반대로 우리는 어떤 무기력에 시달리는 시린 세월을 겪고 있습니다. “KBS는, KBS 노조는 어디로, 누구를 위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조합원의 마음을 파고드는 고뇌의 시대입니다.

공영방송의 원칙과 기본을 다시 생각합니다

새로운 KBS 노조는 ‘대단한 무엇’을 하고자 합니다. KBS 조합원이면 누구나 아는 공영방송의 ‘원칙과 기본’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원칙과 기본’의 문제가 ‘대단한 무엇’처럼 돼버린 게 지금의 역설적 현실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약자에 대한 배려, 여론 형성의 장, 민주주의 확산’ 등이 수신료가 요구하는 공영방송의 원칙과 기본일 것입니다. KBS의 존립 근거는 수신료를 내는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BS는 대통령 특보 사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길로 가고 있고, 국민은 KBS로부터 더 멀어져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퇴행과 역린의 시대,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원칙과 기본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영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은 노조가 당연히 막아내야 합니다. 파업을 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KBS 노조와 조합원들의 파업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KBS 노조와 조합원들은 국민이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의 원칙과 기본이 튼튼하게 세워져야만 조합원들의 생존권도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적 지원과 연대도 가능합니다. ‘새 희망 새 노조’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새 희망 새 노조’가 그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엄경철 ● 보도본부 2TV뉴스제작팀

1994. 12	공채 21기 기자 입사
1995~1999	보도본부 사회부, 기동취재부, 9시 편집부, 국제부
2000	청주방송총국
2001~2003	보도본부 정치부, 사회부
2004~2007	2TV <뉴스타임> 앵커
2008~2009	보도본부 정치팀, 시사보도팀 <미디어포커스>, 수신료프로젝트팀
현재	보도본부 2TV뉴스제작팀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평범한 조합원으로 만 15년의 세월을 KBS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노동조합의 위원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제 삶의 급격한 변화가, 평범하게 살기 힘든 상황이 KBS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는 노조야말로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더 강력하게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노조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조합원의 불이익, 부당 인사, 부당 징계를 끝까지 막아내는 강한 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노조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원의 리더가 아니라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이끄는 리더, 조합원의 마음과 다른 길로 가는 리더가 아니라 조합원의 뜻과 의지, 열정을 한 곳으로 묶어 용솨음치는 집단 지성의 촉매제가 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집단 지성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노조의 힘이 될 것입니다.

KBS를 지키는 당당한 이름! 새 희망, 새 노조!

조합원 여러분! 지금 가는 새로운 노조의 길에서 앞 선 사람과 뒤 선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직종은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

인으로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새로운 노조를 이끌고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그 길로 함께 갑시다. KBS를 지키는 당당한 이름! KBS를 말하는 자부심! 새 희망 새 노조의 길로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을 되찾고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고맙습니다.



반듯한 노조, 진실한 노조 방송독립의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며칠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인가?

새롭게 출범하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부위원장 자리를 앞에 놓고 이런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2007, 2008년 2년 동안 11대 노조의 중앙위원을 맡으며 KBS가 군홧발에 침탈당하며 방송장악의 격랑 속에 침몰해가는 모습을 목도하고 몸을 던져 싸웠던 그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또다시 이 길을 다시 가라고 하는 동료들이 솔직히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밝히고 짚겨 이제는 만신창이 다 돼버린 KBS를 누군가는 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동료들과 선배들의 눈빛을 보고 저는 모든 주저함을 접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서로가 힘을 합한다면 그 어떤 험난한 길이라도 헤쳐갈 수 있다는 믿음 역시 있었습니다.

특보사장, 비리감사...우리가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KBS는 우리들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혹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사장 자리를 차지한 이병순 씨의 뒤를 이어 급기야는 정권창출에 직접 앞장섰던 사람이 사장이 되는가 하면, 아예 비리 전력자가 감사가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장의 정권홍보는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이 돼가고 있고, 비판의 칼날이 빠져버린 KBS는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영속을 위해 정부의 방송정책은



이내규 ● TV제작본부 교양제작국

1995. 10 공채 22기 프로듀서 입사
1996~2003 대전방송총국 편성제작국 근무
2003~2004 TV제작본부 기획제작국 KBS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 연출
2004~2009 TV제작본부 시사정보팀(추적 60분), <시사투나잇>, 교양제작국 <러브인아시아>, <6시내고향> 연출
2007~2008 11대 KBS노동조합 중앙위원
현재 TV제작본부 교양제작국 <걸어서 세계속으로> 연출

조중동에 종편 특혜 폭탄을 안기는데 맞춰져 있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누가 저항하고 누가 견제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 저항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왔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투쟁의 구심점이 돼야 할 노동조합은 지난 몇 년간 극에 달한 노노갈등을 치유하고 일치된 역량을 모아 정권과 그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는 사장에 맞서 방송독립을 위해 싸우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노조의 울타리를 벗어나 싸움의 최전선에 섰던 사람들도 지난 1년 반 동안의 파상공세에 어느 정도는 지쳐 있었습니다.

새 노조의 건설은 이러한 고착 상태를 타파하고 꺼져가는 공영방송을 되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모여져 나온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특보 사장에 대한 파업 투표가 부결된 뒤 진퇴유곡에 빠졌던 노조집행부가 해가 바뀌자마자 바로 그 특보 사장과 나란히 서서 떡을 써는 모습은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새 노조의 결성이 없었다면 정권의 방송장악 일정은 완전히 마침표가 찍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새 노조, 방송독립의 구심점으로 세우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굴종과 순치를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당장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도 KBS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부위원장 출사표를 던진 저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들과 KBS의 맑은 내일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신념은 변치 않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격려와 비판, 조언을 주신다면 희망과 웃음으로 새 노조를 방송독립의 구심점으로 세울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